

- 주요 뉴스: 세계은행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하향. 우크라이나 전쟁코로나 팬데믹 등을 반영
 - 미국 4월 NAHB 주택시장지수, 7개월 만에 최저. 대출금리 상승 등이 원인
 - 중국 1/4분기 성장률, 4.8%로 시장 예상치 상회. 향후 경기는 둔화될 가능성
 - 일본은행 총재, 엔화 환율의 급변동은 기업활동에 부정적. 완화기조는 유지
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전망 등이 영향

주가 약보합[-0.0%], 달러화 강세[+0.3%], 금리 상승[+3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은행주 강세와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우려가 상충
유럽 증시는 부활절 연휴로 휴장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'20년 4월 이후 최고 수준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3%, 0.4% 하락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기 양적긴축 가능성 등으로 3년래 최고치
독일 채권시장은 부활절 연휴로 휴장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35.8원, +1.4원) 0.1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4/18일	4/15일	전일대비			4/18일	4/15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391.7	4,392.6	-0.02%	국채 금리 10y	미국	2.85%	2.83%	3bp
	유럽	휴장	휴장	-		독일	휴장	휴장	-
	중국	3,195.5	3,211.2	-0.49%	CDS 5y	한국	32bp	32bp	0bp
	일본	26,800	27,093	-1.08%		중국	68bp	67bp	1bp
	한국	2,693.2	2,696.1	-0.11%	위험 지표	EMBI+	-	375	-
환율	달러지수	100.80	100.50	0.29%		VIX	22.17	22.70	-2.33%
	유로화	1.0782	1.0810	-0.26%		WTI유	108.21	106.95	1.18%
	엔화	126.99	126.46	-0.42%	원자재	구리	480.2	472.4	1.66%
	위안화	6.3671	6.3715	0.07%		금	1,978.9	1,978.2	0.03%
	원화	1,234.4	1,229.6	-0.39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- **세계은행,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하향. 우크라이나 전쟁·코로나 팬데믹 등을 반영**
 - 금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1월(4.1%)에 비해 낮아진 3.2%로 제시.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으며, 이에 유럽 및 중아시아 지역의 경우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
 - 맬패스 총재는 전쟁과 공급차질 심화 등에 따른 에너지 및 식품가격의 급등이 신흥국 뿐 아니라 선진국의 경제 성장도 저해할 것으로 전망. 또한 중·저소득 국가들의 부채위기 문제가 금년에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
 - 한편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1700억달러 규모의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언급. 이번 프로그램은 금년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되며, 이 가운데 500억달러는 향후 3개월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계획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- **미국 재무차관, 러시아 제재가 세계경제의 해체를 초래하지는 않을 전망**
 - 아데예모 차관은 러시아 제재에 따른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면서, 필요 시 러시아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언. 다만 이와 같은 강력한 제재 영향으로 달러화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
- **미국 4월 NAHB 주택시장지수, 7개월 만에 최저. 대출금리 상승 등이 원인**
 - 해당 지수는 77을 기록하여 전월(79) 대비 하락한 반면 예상치(77)에 부합. 최근 주택재고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, 대출금리 상승과 주택건설비용 증가 등으로 업체들의 주택건설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평가
 - 뉴욕 연은 설문조사에 의하면, 응답자들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내년에 7%, 향후 5년에는 평균 2%에 이를 것으로 전망. 대출금리 상승 등이 주택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분석. 임대비의 경우 내년 11.5%, 향후 5년에는 평균 5.2% 상승을 관측
- **중국 인민은행,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산업 및 기업에 금융지원을 강화**
 - 해당 조치는 경기둔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. 특히 금융기관 대출을 확대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, 대출상환 기간은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

■ 중국 1/4분기 성장률, 4.8%로 시장 예상치 상회. 향후 경기는 둔화될 가능성

- 통계국에 따르면, 1/4분기 성장률은 4.8%로 전분기(4.0%) 및 예상치(4.4%) 상회. 이번 결과는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강력한 봉쇄조치 관련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했음을 확인
- 하지만 이날 발표된 3월 소매매출, 산업생산, 고정자산투자가 전년동월비 각각 -3.5%, 5.0%, 9.3%를 기록하며 전월(6.7%, 7.5%, 12.2%)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봉쇄조치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. 이에 4월에도 경제활동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
- ING의 Iris Pang은 봉쇄조치가 공급 차질 심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제조업 생산 및 서비스 제공 관련 불확실성을 높이고 고용에도 부정적이라고 지적. 이에 향후 재정정책을 통한 지원이 없다면 이번 성장률 결과는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
- Rhodium Group의 Logan Wright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 당국이 이전에 제시한 금년 성장률 목표(5.5%)를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언급

■ 일본은행 총재, 엔화 환율의 급변동은 기업활동에 부정적. 완화기조는 유지

- 구로다 총재는 환율 급변동 시 기업들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. 다만 엔화 약세가 기업의 해외수익 증가 효과를 유도하기에, 전반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기존의 평가는 변함이 없다고 첨언

■ 러시아,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및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등이 예상

- 푸틴 대통령은 정부 예산을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 및 대출 증가를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. 한편 엘비라 나비올리나 중앙은행 총재는 신용공급 확대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,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발언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4/18 현지시각 기준)

- 중국 3월 소매매출(전년동월비): -3.5%, 2월(6.7%), 예상치(-1.6%)
- 중국 3월 산업생산(전년동월비): 5.0%, 2월(7.5%), 예상치(4.5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4/19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, 3월 주택착공건수 및 건설허가건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연준의 경기 연착륙 유도, 지금과 같은 고물가 여건에서는 달성이 어려운 과제 - WSJ
(Hot Economy, Rising Inflation: The Fed Has Never Successfully Fixed a Problem Like This)
 - 연준은 인플레이션 완화와 제한적 실업률 상승으로 대변되는 경기 연착륙 유도를 시도. 지난 80년 동안 경기 연착륙에 성공한 경우가 존재. 하지만, 인플레이션율을 4%p 이상 낮춰야 하는 시기로 국한한다면 성공 사례가 전무
 - 연준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여건(우크라이나 전쟁, 중국의 강력한 봉쇄 조치 등)의 개선 여부가 관건. American University의 Ellen Meade는 연준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, 경착륙 회피 가능성이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
-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, 지정학적 위험을 고려할 필요 - Financial Times
(Investors seeking havens must weigh geopolitical risks of China versus US)
 - 준비통화 등 위기 시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안전자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위상이 악화. 러시아 제재의 여파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어느 진영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향후 안전자산의 정의가 변경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
 -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준비통화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. 하지만 중국은 국채시장의 유동성 부족, 취약한 법체계, 정치적 지배구조 등의 문제가 상존. 미국 달러화와 국채는 안전성을 위협받고 있지만, 당분간 안전자산 지위를 유지할 전망
- 연준의 금리인상, 은행 보유증권의 평가액 및 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 - WSJ
(Bank Stocks Have to Reckon With the Downside of Higher Rates)
- 미국의 중국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, 보다 정밀한 해법이 요구 - Financial Times
(America is struggling to counter China's intellectual property theft)
- 일본의 증시 개혁, 해외 투자 유치 관련 실효성은 회의적 - 블룸버그
(Tokyo's Real Superhero Stocks Need to Take Center Stage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